

정낙추 만평

농촌 풍경은 사진 속에서만?

3

편집인의 글

이제는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 / 구자인

4

특집 농촌 마을 건축, 마을공동체의 삶을 담는 그릇

마을과 농촌 건축은 모두의 것이다 / 김승근

10

충남의 권역사업 추진 실태 및 유희시설 현황, 그리고 몇 가지 제안 / 조영재

17

농촌 건축과 주민 참여 / 최성재

24

다시 보자, 마을회관 / 김옥선

35

농촌 건축이 우리 삶을 담는 그릇이라면 / 이지연

42

심층 인터뷰 / 농촌 건축을 바라보는 세 개의 입장 / 정민철, 안현경, 이윤정

48

청년, 농촌에 살어리랏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업 하는 청년 / 이준표

68

우리 마을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연꽃정원을 품고 있는 부여군 맞바위 마을 / 윤보연

80

지상중계 / 2020년 제2·3·4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

시골 마을 순환버스, 어떻게 가능할까?

87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회관이 되려면

92

정책 동향

농지제도 정비 추진, 시동을 걸다 / 강마야

98

농촌 공간 정책의 새로운 틀, 농촌협약과 농촌공간계획 / 윤정미

100

한국판 뉴딜, 농업·농촌이 안 보인다 / 김기홍

102

기대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의 사회적 실험 / 박경철

104

지원센터 활동 보고

충남농촌지역정책 4회 연속 세미나 개최

106

센터 상근자 맞춤형 교육 1차 개최

107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민간 위탁 운영 활성화 워크숍 개최

108

필자 소개

110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현황과 연락처

112

농촌 풍경은 사진 속에서만?



이제는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

구자인/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코로나19가 묻는다, 누가 실천할 것인지

이번 가을호 이야기도 코로나로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여름 지나 가을이 오면 나아지겠지 기대했습니다. 올해 6회째인 마을만들기충남대회도 6월에서 9월로 연기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제나저제나 서로 만나 얼굴 맞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날이 올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부질없는 기대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충남대회도 결국 취소되었고, 출장 금지에 재택근무까지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충남의 확진자는 이미 449명으로 늘었습니다(9.16 현재). 8월까지 확진자가 없던 청양군에 이어 마지막 남았던 예산군까지 ‘뚫렸’습니다.

예전처럼 만나서 재미있게 수다 떨고 술 한잔 기울이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작고 소소했던 일상이 정말 소중한 추억이란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고, 서로 만나자는 약속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었네요. 이런 일상을 받아

들여야 하고 큰 전환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대규모 행사는 아예 기획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회의에 익숙해져야 하겠습니다. 토론회나 워크숍 같은 행사도 참가자가 적게 모이는 방식으로 기획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까요? 마을공동체 활동은 이런 환경에 적응만 해야 할까요?

저는 지난 호 글에서 ‘농촌이 도시에 비해 코로나19 같은 위기에 상대적으로 강하고 안전하다’, ‘농촌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며 충남형 마을만들기의 사업설계, 농촌마을정책의 융복합, 혁신적인 시범사업 도입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고, 문제 해결 방향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를 말하기에는 너무 선부르고, 지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부터 반성해야겠지요.

그럼에도 할 말은 여전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공동의 실천을 조직하는 작은 모임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방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의 민간에 대한 통제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선진적인 시도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중앙이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간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고도 경제성장 신화를 꿈꾸고, 행정 의존적인 인식과 편리함과 편안함에 대한 추구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친 비판일까요?

우리 마을운동(마을만들기)은 마을공동체의 자치 역량에 기반하여 농촌 사회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현장에 사는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생활운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최선보다 차선’에 합의하며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

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변화는 더디게 나타납니다. 여전히 행정과 제도, 사업이 너무 돋보입니다. 누가 나서야 할까요? 누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 글을 읽는 바로 당신이 아닐까요?

이번 특집 주제는 ‘농촌 마을 건축’입니다

올해 시리즈로 진행 중인 ‘마을은 우리 모두의 공간’의 세 번째 특집 주제는 ‘농촌 마을 건축’입니다. 지난번 특집 주제였던 ‘마을회관’(봄호)과 ‘마을 경관’(여름호), 또 겨울호로 예정된 ‘마을 계획’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농촌’은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촌은 전통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이 사라지고 국적 불명의 건축물 전시장으로 변모한 상태입니다. 또 행정사업으로 건립된 건축물이 방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들이 얹혀 있어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❶ 부재지주나 부동산투기 등의 이유로 꼭 필요한 장소에 부지 확보가 어려워 방치되기 쉬운 장소에 입지하였다는 점, ❷ 건축 설계 과정에 주민 참여가 미흡하고, 농촌사회와 마을 건축 과정을 이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 및 행정 역량이 부족한 점, ❸ 예산과 설계, 입찰, 시공 등의 전체 행정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복잡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 ❹ 공동시설 소유와 운영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이유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습니다.

이번 특집 주제 원고는 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짚고 있습니다. 현실이 복잡하니 전체 맥락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전히 주제 분류와 필자 발굴에 어려움이 많지만, 바쁜 가운데 김승근 교수와 조영재 연구실장, 최성재 대

표, 김옥선 팀장 등이 좋은 원고를 보내주었습니다. 아산에서 활동 중인 이지연 대표는 밴드 광고를 보고 일반 투고를 해주었습니다. 지면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한 원고 세 편이 있습니다. 마을 건축에 관련했던 건축가, 마을 추진위원장, 행정 공무원을 각각 섭외해 인터뷰한 뒤 정리한 원고들입니다.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민철 이사와 안현경 이사,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이윤정 연구원이 인터뷰에서 원고 작성까지 수고해주었습니다.

지상중계 코너에서는 지난 봄호의 특집 주제였던 ‘마을회관’에 대해 7,8월 대화마당에서 다루었던 결과를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독본』 특집 주제와 대화마당을 연결시켜 진행하려 합니다. 지난 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마을독본』을 읽고 토론하고 실천해보고 그 경험을 담아 투고해주시면 잡지의 가치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투고를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소식이 있어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마을독본』 통권 1~4호에서 다루었던 특집 주제를 재편집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당시 다루었던 주민조직도(1호)와 공동재산관리(2호), 자치규약(3호), 마을회의와 기록관리(4호) 등은 마을만들기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추가 인쇄를 요청하는 주문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충청남도가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확인을 한 셈이라 기쁘기도 했습니다. 단행본 발간 계획은 작년 말에 기획해서 올해 센터 사업에 넣어두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래저래 늦어졌지만, 12월 중에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